

제목	국문	광주지역의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에 대한 예비조사			
	영문	Preliminary study on reported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rates of thyroid cancer among Korean urban cancer registries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임정수, 이수진 ¹ , 최진수 ¹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,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			
	영문	Jeong Soo Im, Su Jin Lee ¹ , Jin Su Choi ¹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ocial Security Research Center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¹			
분야	역학 [암]	발표자	이수진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중 → 완료예정시기 : 2001년 12월 31일				
<p>1. 목적</p> <p>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의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고, 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예비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.</p> <p>2. 방법</p> <p>1997년부터 자료수집이 가능한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4개 도시의 지역암등록사업단에서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 사례를 수집한 후 각 도시의 연령별 특수발생률, 연령보정발생률을 계산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의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였다. 또한 1999년도 의료보험 연합회 자료를 이용하여 갑상선암(C73)과 갑상선결핵(E00-00)의 의료보험 청구율과 의료 이용률을 조사하였다.</p> <p>3. 결과</p> <p>1. 4개 도시의 연령보정발생률은 서울(1997-1999) 10.04, 부산(1997-1998) 8.35, 대구(1997-1998) 6.13, 광주(1997-1999) 14.36으로 나타나 갑상선암 발생률의 지역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 35세부터 60세 사이에서 연령보정 발생률의 차이가 보였으며,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는 갑상선 유두암에서만 차이가 확인되었다.</p> <p>2. 4개 도시의 지역암등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역암등록 시스템과 지역암등록자료의 충실도, 타당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.</p> <p>3. 4개 도시의 갑상선암 연령보정청구율은 광주가 제일 높았고 부산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. 또한 갑상선결핵 연령보정청구율은 부산에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도시는 비슷하게 보였으며, 특히 갑상선종 연령보정청구율은 광주와 부산에서 높게 나타났다.</p> <p>4. 갑상선암으로 청구된 서울, 대구, 광주 지역의 건강보험수진자의 95% 이상이 종합병원을 이용하였는데, 부산의 수진자는 84%만이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원을 이용하였다. 또한 부산 수진자의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도 다른 도시의 16%에 비해 10%로 가장 낮았다.</p> <p>4. 고찰</p> <p>연구 진행중</p>					